

사설

포교 청사진에 박수 보내며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은 21세기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포교청사진을 발표했다. 장편의 포교청사진에는 인류문명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불교의 역할과 접근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다가올 세계의 변화와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다각도로 조명할 것은 아픈없는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조계종의 방향은 종단의 발전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을 사회에 투영하지 못하므로써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문화의 창출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외국인의 사조가 국내에 발달하게 된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종합보고서가 나온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매우 뜻깊은 일임에 틀림없다. 문화적 열등감에서 벗어나 21세기 세계문명의 한 축을 불교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작업을 뜻있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었다는 점에 감사와 희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조계종의 개혁의지가 천명된 이래 그동안 소리없이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한국불교는 천 칠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그동안 조상의 문화유산이나 얼을 팔아먹는 데 급급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준 불교의 지리멸렬은 생각만 해도 안타깝다. 해방 이후 비구·대처의 분쟁과 그로 인한 분열, 이후 연중행사처럼 발생한 종권분쟁 등으로 인하여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자아냈으며, 민족종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성인들의 우려도 자아냈다.

이제 이러한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야 한다. 하여 다가오는 21세기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접근 전략과 방법이 보다 세밀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분단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세계문명의 흐름과 한국불교의 진로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연구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열린마당

사이비 승 근절

혜창스님



일력처럼 스님도 아니면서 승려행세를 하는 사이비·유랑객들이 여비나 약값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찰의 신고가 늘 어오면 우리 호법부 직원들이 즉각 출동해 단속을 펴 왔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근교에서는 사이비·유랑객들의 비리가 많이 근절되었지만 여를 행락할을 맞아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는 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승려사칭 행위 지속 단속 종단협 차원 공동대책 필요

사이비 승려에 대한 본 호법부의 조사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사법권이 없는 것과 조계종 소속 승려에는 규제·징계·단속의 권한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종단과 연대할 수 있는 종단협 차원의 공동대책이 필수적이며 관계 기관(문체부, 경찰청, 관할구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승복을 수하고 승려를 사칭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근거나 권한이 없으므로 승복을 특허출원하거나 성직자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응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계종 호법부장)

임효정



MBC TV의 '소쪽새 마을의 진실'은 나쁜 아내나 주위의, 소쪽새 마을에 작지만 정성어린 성금을 보내주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소쪽새 마을'에 성금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하고 한 것은 물론 그곳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선'이 장애아·정박아·노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지 일을 하였기에 더욱 믿고 동참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종단 승적관리 강화로 또다른 '일력' 생기지 않도록

가슴 아프다. '일력'이 스님도 아닌 사이비 승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종단에서는 차제에 승적관리라든가 스님되는 일을 철저히 관리해 우리같은 재가인이 더 이상 신심에 상처입지 않았으면 한다. '일력' 사건으로 일부 복지단체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가슴 아프다. '일력' 사건을 계기로 남에게서 받은 보시금 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모두들 각별히 반성해 보았으면 한다. (경물련 여성부위원장)

사이비 승 조심하자

군소종단 승적갖고 '불자 우롱'

조계종 호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탁발·유랑객 등 사이비 승 중에는 오, 스, 바, 스 등 군소종단 승적을 갖고 있거나 조계종에서 탈퇴된 자, 승려도 아니면서 가져다 머리 깎고 승복입은 자가 태반.

고 알려진 이들은 출퇴근하며 탁발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7백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품요구] 또 대구·경남 북쪽의 이른바 방생버스에 승객들이 승려복을 입고 승려로 착각하여 승려복을 사달라고 한다. 00불사하니 도와달라, 복지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보내달라거나 금품을 요구, 구좌번호까지 알려 주며 보시를 강요하고 있다. 과거 탁발은 수행의 일부였지만 요즘은 유랑·만행행위도 그 자체가 수행의 한 과정으로 삼아왔는데 현대에 들어서 이러한 불가의 전통적인 수행과 미덕이 변질되고 있고, 따라서 조계종은 탁발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승려의 탁발·상품판매행위·보시강요 등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는 (02)735-1769, 5865(호법부)로 신고를 바라고 있다.

사이비 승들에 의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상품 판매 행위이다. 각 시·도의 주민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 등 대안위 행사장에 나타난 조계종 복장의 승려와 난장이 등 3~4명이 간언이설로 스쿠알렌 등 건강식품을 팔고 있다. 승려복장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교한방병원에도 관여하고 있고 사할 불사를 도와달라며 20~30만원 하는 건강식품을 팔고 있다. 인도에서 공부하고 특이한 영을 받아 부적을 만들었다는 거짓말로 1개에 만원씩 받고 '만사형통부적'까지 팔고 있는 실정.

신세계 앞이나 명동의 제일 백화점, 동대문역, 서울역, 청량리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보시함을 얹어 놓고 목탁을 치며 시주를 요구하는 탁발승을 흔히 만나는데 이들은 속칭 '탁발종'에 소속된 가짜승려들, 지역 폭력배와 연계됐다.

시론

혹시 무너지면 어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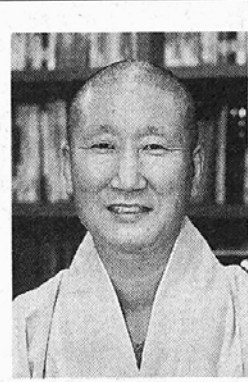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돈'이든 제 일이라는 물질만능의 전도된 사회의식이 빚어낸 허상과 허무의 드라마이다.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다. 설계에서 지반조사 그리고 시공과 감리, 또 수없이 뒤바뀐 설계변경 거기에 더하여 가사용 승낙 그리고 준공검사 또 다시 증축으로 이어지는 행위들이 건물붕괴의 원인이요 결과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직 서초구청장을 비롯 한 담당공무원들의 부리깊은 유착등은 원인이 원인을 더하여 이 사회에 구조적 모순을 이루어왔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자 다음은 아파트 차레라는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장안에 유행했다. 신문과 방송도 일산·중동·분당·평촌 등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실공사의 흔적들을 다루어 보도했다. 유언비어에 근거를 보태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일까, 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백화점, 호텔, 기타 고층빌딩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린다고 한다. 혹시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외국의 건축물은 설계에서 지반조사는 물론 각 분야의 공정에 따라 공사를 거친 이후에야 다음 공정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도 늦기는 했어도 건설선진국의 꼼꼼한 제도를 도입해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표현은 이제 역겹기까지 하다.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붕괴불안심리는 정작 아파트의 부실시공보다 당국에 대한 불신감이 더 큰 원인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질만능이 낳은 대참사. 성수대교 붕괴와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건 이후에도 그랬듯이, 정부는 이번에도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더 이상의 인재에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점검과 대책을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있어야 할 최우선의 이유이다.

부실공사 이외에도 건물내부를 무리하게 개조하는 등 불안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어느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0%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파트 개조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80%의 입주자가 내부구조를 바꿨다고 한다. 인간의 욕망은 다가를 불행도 어렵지 않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우리는 무엇이냐 빨리 성취하려는 생각도, 일에 직면해 대충 대충 해치워버리는 그릇된 습관도 그리고 무망한 욕심도 이제야말로 버리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다. '빨리 대충 한국병' 버리자.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철조 다리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작업인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다리는 사장인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에게 말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주인의식을 강조한 것이며 그러한 주인의식을 우리들도 이번 삼풍 대참사를 기회로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안전사회 만들기' 운동에 각자가 적극 동참하는 것도 불과 신드롬을 극복할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나아가 각자 건전한 고발정신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안그래도 불안하고 외로운 것이 현대인의 심리라고 보는데 가슴되는 공포가 있다면 어떤 행복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었는가. 세상 만사가 모두 반복되고 연속되는 현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이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 속에서 그동안 탐욕은 자신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국가까지도 맴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상대적인 삶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주체적인 입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사회생활에서 동체대비의 정신을 구현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삶의 진실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이웃과 더불어 웃고 즐길 수 있는 데 있다. 우리 다 같이 덧없는 삶속에서 생명의 실상(實相)을 찾도록 하자.



제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남북 종교교류 제재 '유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띤 남북한의 종교교류가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지난 1~5일 일본의 도쿄에서 남한측의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담스님 등은 남북교류 협의를 위하여 북한측의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황병대, 상무원 류성철 등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한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베이징에서 합의된 남북한 상호방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특히 도쿄회의는 남한측 대표단의 출국직후에 남북협조불허방침을 정부가 긴급 통보함으로써 남한측 대표들이 회담에 불참하는 사태를 야기, 북한측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달말도 예정돼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스님의 방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 '방북을 추진중인 조계종의 일주 총무원장과 천주교의 김수환추기경이 아직 북한측의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이들 종교지도자들의 방북성사가 불투명한 실정'이라 밝혔다. 이것은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와 남한 정부

의 지원 역시 부족한 때문이라 보는 것이 종교계 일반의 견해다. 우리는 남북 종교인의 교류, 특히 남북불교인의 교류가 정치성을 띠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당국의 지나친 통제로 인해 남북불교교류가 활발하게 성사되지 못하는 것에도 우려를 금치 못한다. 세계는 바이호로 급변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문명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옮겨오리라는 세계 석학들의 전망과 새로운 문명의 추구는 남북의 통일을 더욱 간절하게 하고 있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는 순수한 종교간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21세기 세계문명의 커다란 조류에 동참하여 한민족의 항구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제 정부나 북한 당국은 대중적 차원에서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이며, 순수한 종교간의 교류는 오히려 장애되어야 하리라 본다. 무엇이든 이해를 따지면 안된다. 그저 민족애가 필요할 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총무원장의 방북 무산이 예견되는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이 저리십니까”

생활속의 불교 33

식단표 외운다고 배 부르겠나?

눈이 먼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는 목발이 필요하듯이 불행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 참된 스승은 누구인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 쉽지 않고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 또한 어렵다고 한다. 그러는 중에도 선지식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 원효는 대안대사를 만났고 혜가는 달마대사를 만났다. 역대 조사들도 큰 스님들도 다 눈밝은 스승을 만나 인도를 받았다. 이 혼탁한 세상에 중생의 심안을 밝혀줄 큰 스승은 누구인가? 승부에 귀의한다 함은 스님들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다. 자·비·희·사의 무량한 구도정신, 한 점 흐트러짐이 없



는 정진력을 보고 따라 배우라는 것이다. 단지 삭발염의한 모습이 남다른다 하여 믿고 따르라는 게 아니다. 금강경은 분명히 '상(像)으로 여래를 볼 수 없다'고 가르친다. 어떤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겠노라'고. 그렇다면 진경조 참다운 스승은 누구란 말인가? 선사의 살불살조(殺佛殺祖)정신은 '자기 밖의 스승'에 대한 강력한 부정의요, 타력에 매달리는 중생에 대한 경고이다. '너 자신' 이외엔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누구라도 다 불성을 갖고 있다. 고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밖의 것은 다 허상이요 우상이다. 설사 내 앞에 달마대사가 있다 해도 깨닫는 주체는 '나'이지 달마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식이라도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서 깨달아 줄 수는 없다. 밖에 있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깨닫는 주체는 '나'이다. 고로 범등명(法燈明)일 뿐이다.

선 지식은 지팡이요 목발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이정표이다. 음식점의 메뉴판이요, 지도(地圖)이다. 결코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지팡이요 목발인 점에서는 호르는 물, 바위,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다같이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데는 산과 물, 선지식이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상(像)에 이끌려 박쥐중, 머리 작은 거사조차 분별할 줄 모른다. 장님을 따라가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혜가의 스승은 달마대사지만 불성을 깨달은 이는 혜가였다.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켜먹고 배부른 것은 혜가였지, 달마가 아니었다. 무엇이 참 스승인 줄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마도 대안도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청주 : 심롱회, 심근회, 심일회, 심원회, 심선회